

그라운드 룰

반성할 점 - 해결 그라운드룰

- 각자 이야기 한 것들이 모두가 안다고 생각해서 서로 비어있는 정보 영역이 큼



- 아침 등 공유한 내용은 노선에 기록
- 팔로우업 문서를 보고 이해하고, 질문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기
 - 거의 다 아는데 모르면 그 사람의 책임

-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명확하게 오지 않는다는 느낌
 - 피드백이 있어야 잘 흘러가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진행이 더딘 거 같음



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자

어떤 것에 대해 좋다 싫다를 밝히지 않았는데 확정이 된다면 ...

- 서로 업무 체크업 하는데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 같음

간단한 작업이라도 **지라 스토리 업로드** 하기

-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



개발을 하면 6명 지라 진행 중(MR mm 알림)을 다 보고, 누가 뭐 하고 있는 **지 파악**을 해야 할 듯

- 숲을 보고 하기



6명이 다 모였을 때는 **개인 행동 자제하고 집중하기**

- 업무 지연 해결



아침 스크럼에서 **일정 체크한 것은 그날 꼭 시행하기**

- 안 될만한 일이 있다면, 바로 이슈 공유하고 일정 관리

- 일단 업무는 60% 이상 정해져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할지 명확해지고,
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상세하게 명확하게 알기 쉬울 듯



명확하게 개발 계획을 세우고, 지라를 보며 **실시간 트래킹**도 가능하게 해야
할 듯